

이 집 트

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2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6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의견	10

I . 일반개황

면적	1,001천 km ²	G D P	3,123억 달러 (2015년)
인구	84.9백만 명 (2015년)	1 인 당 GDP	3,680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공화제 (대통령 중심제)	통 화 단 위	Egyptian Pound (E£)
대외정책	친서방, 친아랍	환 율(달러당)	7.78 (2015년 평균)

-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와 8,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대국임. 한편, 전체 인구의 90%가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고 그 외 9% 가량이 콥트교를 믿음.
- 유럽, 중동,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정책 등을 통해 역내 정치, 경제,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음.
-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2011년 1월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무르시 후보가 당선되었으나, 이슬람주의 정책 강요와 권력 기반 확대에만 급급하다 집권 1년 만에 축출됨.
- 이후 과도정부를 거쳐 2014년 5월 대선에서 엘시시 前국방장관이 당선 되었음. 엘시시 대통령은 무르시 前대통령 지지세력 및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 표 1 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(단위: %)

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경제성장률	2.2	2.1	2.2	4.2	4.3
소비자물가상승률	8.7	6.9	10.1	11.0	8.8
재정수지 / GDP	-10.5	-14.1	-13.6	-11.7	-9.4

자료: IMF.

□ 정권 안정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 추세

- 2011년 이후 반정부 시위 및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, 쿠데타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, 투자위축 등으로 인해 2010년 5.1%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이 2%대로 크게 하락하였음.
 - 2010년 기준 이집트 경제에서 관광업은 GDP의 약 11%를 차지함.
- 그러나, 2014년 엘시시(el-Sisi)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 불안이 완화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15년 경제성장률은 4.2%로 상승하였고, 2016년에도 전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.
 - 향후에도 경제성장률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나, 석유·가스 수출이 약세를 보이며 2006~08년과 같은 8%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□ 파운드화 가치 하락, 연료보조금 삭감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

- 최근 수년간의 정치·사회 불안으로 인한 생필품 가격 상승 및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*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.
 - * 환율 추이(이집트 파운드/달러) : 5.93('11년) → 6.86('13년) → 7.78('15년)
- 2015년 물가상승률은 연료보조금 삭감,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등에 따라 11.0%까지 상승하였으며, 2016년에는 전년 기저효과로 다소 하락할 전망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.

□ 보조금 삭감 및 경제성장세에 따른 재정적자 감소 추세

-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민심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,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14.1%까지 상승하였음.
- 그 후 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 재정적자 축소 노력으로 2015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으며, 2016년에는 부가가치세 도입 및 경제성장세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9.4%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관광업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

- 2015년 기준 GDP의 부문별 비중은 서비스 부문이 52.5%,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및 석유, 천연가스 개발 등 일반산업 부문이 36.3%, 면화 중심의 농업이 11.2%를 차지하고 있음.
 - 2012년 대비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2.4%p 증가한 반면, 일반산업 부문의 비중은 2.5%p 감소하였음.
- 제조업 기반이 대체로 취약하고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, 경제 전반이 국내 및 중동 지역의 정치·사회 상황, 세계 경기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.

□ 걸프국, 미국 등 해외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

- 걸프협력회의*(GCC) 국가와 미국의 원조는 투자, 재정수지, 외환보유액 등 이집트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 - * 1981년에 결성된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의 협력체로 사우디아라비아, 카타르, 쿠웨이트, 바레인, 오만, UAE 6개국이 소속
 -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, 쿠웨이트, UAE 3개국은 이슬람 테러집단의 영향력 차단, 중동 지역의 안정 등을 위해 중앙은행 예치금, 석유제품, 투자재원 등의 형태로 총 120억 달러를 지원하였음.

-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군사·경제원조 규모는 이스라엘에 이어 제2위로 2014년 기준 군사원조 13억 달러, 경제원조 15억 달러를 제공하였음.

- 최근 저유가 기조로 산유국들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이집트 지원 중단 여론이 증가하고 있어, 향후 원조규모 감소시 이집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천연가스가 국가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

- 원유는 최대 유전인 Suez 유전의 고갈과 신규 유전개발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, 천연가스는 나일 강 삼각주와 서부 사막지역에서 탐사·채굴에 성공하여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.
- 특히, 2015년 지중해 해안에서 190km 떨어진 Zohr 광구에서 30조 입방피트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발견하였으며,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.
- Zohr 천연가스전의 매장량은 현재 이집트가 보유한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(62.5조 입방피트)의 절반 수준임.

다. 정책성과

□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경제성장 추진

- 2014년에 집권한 엘시시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 ‘2030 Vision’에서 경제, 에너지 등 12대 분야의 달성목표를 수립하였고, 2015년 1인당 GDP 세계 113위에서 2030년까지 세계 30위권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.
- 경제 분야의 경우 성장률 7%, 실업률 5% 달성 등을 목표로 하였으며,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급률 확대를 통한 자원안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.
- 아울러, 2015년 3월에 개최된 이집트경제개발회의(EEDC)에서 사우디 아라비아, UAE, 중국 등으로부터 총 382억 달러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음.

□ 제2 수에즈 운하 개통으로 물류허브 육성

- 수에즈 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이 오가는 아시아-유럽 간 항로로 2015년 7월 기존 운하(164km)를 연장하는 제2 수에즈운하가 개통되었음.
 - 제2 수에즈 운하의 공사구간은 총 72km로 기존 운하 중 37km 구간에 대해 폭을 317m로, 깊이를 24m로 각각 늘렸으며, 35km 구간은 새로이 건설하였음.
- 이에 따라, 연간 수에즈 운하 통과 수입이 2014년 53억 달러에서 2023년 13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 확충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.

3. 대외거래

< 표 3 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경 상 수 지	-10,146	-6,390	-2,356	-13,500	-15,800
경 상 수 지 / G D P	-3.9	-2.4	-0.8	-3.7	-4.5
상 품 수 지	-34,735	-29,484	-38,926	-32,472	-31,957
수 출	25,092	26,533	25,203	20,398	19,444
수 입	59,827	56,017	64,129	52,870	51,401
외 환 보 유 액	11,628	13,608	11,995	15,311	-
총 외 채 잔 액	42,185	46,492	49,492	52,792	59,392
총 외 채 잔 액 / G D P	16.1	17.1	17.3	16.6	16.8
D S R	4.6	4.9	5.8	17.1	13.9

자료: IMF, EIU., OECD

□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만성적 적자지속 전망

- 경제발전 및 인구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, 2014년에는 관광수입(收入) 회복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(2.4%)보다 개선된 0.8%를 기록하였음.
- 2015년에는 걸프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가 차관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경상이전수지가 크게 악화되어, 경상수지 적자폭은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도 유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외환보유액은 최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

- 외환보유액은 2012년 116억 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2015년 15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월평균 수입액 대비 2.8개월에 불과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.

□ 외채상환능력에 문제발생 가능성 증가

- 2015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6.6%로 양호한 수준이나 D.S.R.은 17.1%로 전년 대비 약 3배 상승하였음. 향후 저유가 기조로 걸프국들의 원조 감소시 외채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엘시시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불안 완화

- 30년 간 장기 집권한 무바라크 대통령이 2011년 1월 반정부 시위로 하야하면서 독재정권이 종식되었고, 2012년 6월 무르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엘시시 국방장관의 쿠데타로 1년 만에 정부가 전복됨.
 - 2013~14년 무르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과 과도정부 간의 유혈 충돌 및 군·경의 무력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1,500명 이상 발생하였음.
- 이후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엘시시 국방장관의 당선에 따라 정식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불안이 완화되었으며, 2018년 임기까지 정국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.

□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대대적 탄압 지속

- 엘시시 대통령은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고, 이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경하게 탄압하고 있음.
 - 이집트 군사법원은 2014년 3월과 4월에 각각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무슬림형제단 회원 529명, 683명에게 2013년 반정부 시위 무력진압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였음.

- 이후에도 2015년 8월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테러 단체를 만들거나 주도할 경우 사형 또는 종신형, 테러 단체에 자금 제공시 징역 2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□ 이집트 전역의 테러 발생으로 사회불안 가중

- 인구밀도가 낮아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나이 반도는 2011년 초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테러조직들의 근거지로 전락하여 치안이 크게 악화되었음.
 - 특히, 2015년 4월 이슬람 과격단체 Ansar Bayt al-Maqdis의 폭탄 테러로 14명이 사망하였고, 2015년 11월에는 IS의 연계단체인 Sinai Province의 러시아 여객기 테러로 탑승객 224명이 전원 사망하였음.
- 시나이 반도 외에도 카이로에서 2015년 4월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경찰관 1명을 포함해 3명이 사망하였으며, 2015년 6월에는 히삼 바라캇 검찰총장이 차량 폭탄테러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함.

□ 고실업률 지속 및 생활난 가중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 심화

- 이집트의 실업률은 정치 불안에 따른 관광업 부진으로 인해 최근 5년간 12~13%대를 기록하였으며, 특히 25세 미만 청년실업률은 2015년 기준 35.3%로 매우 높은 수준임.
- 한편, 2015년 인간개발지수(HDI)에 의하면 이집트는 188개국 중 108위로 빈곤선 아래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4명 중 1명인 25.2%에 달해 국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엘시시 정부,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다소 복잡

-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세력 확대를 경계하는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은 무르시 대통령 축출 당시부터 대부분 이집트 신정부를 지지하며 경제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음.

- 엘시시 집권 후 사우디아라비아, 쿠웨이트, UAE는 이집트에 120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한 반면, 카타르는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 중 유일하게 무르시 정부를 지지했기 때문에 엘시시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음.
- 전통적으로 이집트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스라엘은 엘시시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. 한편, 이란은 군부의 무르시 축출을 쿠데타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'부당한 행위'라 평가하였음.

□ 러시아와 경제협력 강화

- 2013년 무르시 대통령 실각 후 미국이 이집트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, 엘시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음.
- 특히, 2015년 한 해에만 러시아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. 양국은 동년 11월 200억 달러 규모의 이집트 최초 원전 건설 사업에 합의하였고, 향후 FTA를 체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짐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국제기구 및 미국 등으로부터 외채탕감 경험 보유

- 이집트는 파리 클럽과 1987년, 1991년에 각각 71억 달러, 196억 달러 규모의 외채 리스케줄링에 합의한 바 있으며, IMF로부터 1991년과 1996년에 각각 3.4억 달러, 3.9억 달러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받았음.
- 아울러,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2012년 10억 달러의 외채탕감에 합의하였음.

□ ECA에 대한 외채규모 증가로 외채관리에 신중할 필요

- 2015년 9월 말 기준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총 133억 달러(단기 14억 달러, 중장기 119억 달러)로 전년 대비 46억 달러 증가하였으며, 채권 국가별로는 프랑스(69억 달러), 독일(15억 달러), 일본(17억 달러) 등임.

- 이 중 중장기 차관에서 약 10%에 해당하는 10억 달러의 연체금액이 발생하였으며, 회수불능금액이 4.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외채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.

2. 국제시장평가

< 표 4 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등급	종전 평가등급
당 행	D1 (2016. 2)	D1 (2015. 4.)
OECD	6등급 (2016. 1.)	6등급 (2015. 10.)
Moody's	B3 (2015. 4.)	Caa1 (2014. 10.)
Fitch	B (2015. 12.)	B (2015. 6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 수립: 1995년 4월 13일 (북한과는 1963년 8월 24일)
- 주요 협정: 항공협정('79), 이중과세방지협정('92), 무역협정('96),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('96), 사증면제협정('96), 원자력평화협정('01), 장관급공동위원회 설립협정('12), 문화원 설립 및 운영협정('14)
-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5년 말 기준 45건 2.3억 달러(누계기준)
- 교역규모

< 표 5 > 한·이집트 교역 규모

(단위: 백만 달러)

	2013	2014	2015	주요 품목
수 출	1,535	2,364	2,179	자동차 및 그 부품, 합성수지
수 입	1,016	532	218	석유제품, 의류 등
교역규모	2,551	2,896	2,397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의견

- 반정부 시위 및 군부 쿠데타 등 정권 붕괴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경제 성장률이 2%대로 하락하였으나, 엘시시 대통령 집권 후 정치안정을 회복하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은 4.2%를 기록하였음.
- 민심 안정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, 보조금 지급 등으로 201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4.1%를 기록하였으나,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에 힘입어 점차 하락하여 2016년에는 9.4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- 상품·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, 2016년에는 상품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걸프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형태 전환에 따른 경상 이전수지 악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4.5%로 상승할 전망이다.
- 2014년 5월 엘시시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정식정부 출범으로 정치불안이 완화되었음. 한편, 무르시 前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강경한 탄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.
-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양호한 편이나 D.S.R.은 높은 수준으로 향후 주변국들의 원조 감소시 외채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.

조사역 조재동 (☎02-6255-5727)
E-mail: jjd8948@koreaexim.go.kr